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⑫ 가야산 해인사



▶한줄 요약
어떤 경로이든 경판을 옮긴 이들의 공덕이 더하였기에 고려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려대장경판 해인사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는 의상 스님과 제자들이 세운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다. 해인사는 의상 스님의 법손인 순응 스님과 이정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에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하였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 산이 가야산이다. 자연스럽게 가야산 해인사도 깨달음을 얻는 도량임을 나타낸다. 해인(海印)은 해인삼매에서 왔다. 해인삼매는 〈화엄경〉에 등장한다. 마치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바다가 고요해지면 거기에 만 가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어리석음의 바람이 그치고 번뇌의 파도가 잔잔해지면 마음의 바다[海]에는 도장을 찍듯이[印] 모든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바로 해인삼매이자 깨달음의 세계다.

해인사는 삼보사찰 가운데 법보(法寶)사찰이다. 팔만대장경판(고려대장경판)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장경각에 모신 고려대장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다. 세계문화유산에는 부동산만 지정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이 아니라 장경각(판전)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해인사 일주문 앞 큰 돌에는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판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고려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고려대장경은 뛰어나다. 뛰어난 만큼 풀지 못한 이야기도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고려대장경을 해인사까지 옮긴 여정이다. 완성된 경판은 처음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모셨다가 후에 강화의 선원사로 옮겨졌다. 그 후 조선 초기 1938년 서울의 서대문 밖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옮겨졌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판각된 대장경판은 약 8만 장에 이른다. 경판의 개당 무게는 대부분 3~3.5kg이며, 4.4kg까지 나가기도 한다. 전체 무게는 250t이 넘는다. 이처럼 엄청난 양과 무게의 경판을 그 옛날 해인사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크게 두 경로로 추정한다. 서울 지천사에서 시작하여 장호원·충주를 지나 조령·문경·점촌·구미를 통과하여 장경나루를 거쳐서 해인사까지 운반하는 경로다. 그런데 조령을 넘는 등 육로가 많아서 힘든 경로다. 또는 서울 한강에서 배에 경판을 싣고 서해로 나와 남해를 돌고, 낙동강을 타고 지금의 고령군 개진면 개포마을에 배를 대고 해인사까지 운반하는 경로다. 개포마을 이름도 '경을 풀었다'는 뜻인 개경포(開經浦)에서 나왔다.



해인사 장경각 고려대장경판.

어떤 경로이든 경판을 옮긴 이들의 공덕이 더하였기에 고려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소달구지에 싣고 운반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가끔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공덕을 잊지 않고 따라 기뻐하며 찬탄하고자 경판 이운 행사를 열고 있다.

250t 8만장 경판 서울서 합천까지
옮긴 이들 공덕 더해 오늘날 전해
장경각 속 여러 인연 이야기 가득
신라 때 아픈 공주 위한 불사 설도

가야산 신선이 된 고운 최치원

어떤 경로이든 결국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따라 운반하였다. 홍류동 계곡을 지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설악산 봉정암에 다녀온 이들이 벅찬 신심을 느끼는 것은 봉정암까지 4~5시간을 걸어 올랐기 때문이리라.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찰은 많은데, 봉정암만큼의 감흥은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만약 해인사에 모신 고려대장경을 친견하는 여정도 홍류동 계곡 저 밑에서부터 걸어간다면, 그 감흥은?'

홍류동 계곡을 올라가는 여정이 벌써 극락정토를 거니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마 신라 말 고운 최치원(857~?)이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옛 글에 의하면, 최치원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지리산 등지를 돌아다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고, 그가 머물던 집에 신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그의 흔적만 사라졌다 한다. 그가 입산 후 어떻게 살았는지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치원이 가야산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해인사 곳곳에는 최치원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 해인사와 관련한 여러 시를 남겼으며, 홍류동 계곡 바위벽에는 최치원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일주문을 조금 못 미쳐 길상탑이 있다. 1966년에 탑 안에서 탑지 4매 등이 나왔다. 4매의 탑지는 최치원이 작성하였다. 탑지에는 혼란 속에서 도둑들로부터 사찰의 보물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의 영혼을 달래려 탑을 건립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비로운 것은 학사대 최치원의 지팡이 나무다. 학사대(學士臺)는 최치원이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해인사 학소대 최치원 지팡이 나무.

최치원은 말년에 친형인 현준 스님이 있는 해인사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치원은 제자들을 불러 자신이 머물던 암자 앞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으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 있다면 이 지팡이 또한 살아 있을 것이다. 학문에 열중하라." 이 말을 남기고 홍제암 뒤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뒤 거꾸로 꽂힌 지팡이에서 새움이 터서 나무가 자라났다.

물론 그 나무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 〈백불암집〉에 의하면, 그 지팡이 나무 자리에 1757년경에 심은 손자뻘 후계목이 있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전나무는 역사와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관리 되어왔다. 그러나 2019년 태풍 링링 피해로 부러지면서 그 가치를 잃었다. 지금 학사대에는 죽은 전나무 밑동을 좌대로 최치원 동상이 있다. 2022년 10월 21일 제막하였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의자를 만들어 참배객이 사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눈 셋 달린 강아지와 경판 불사

장경각에는 고려대장경 이외에도 여러 인연의 경판이 있다. 신라 때 합천 사람 이거인이 대장경 불사를 발원하여 아픈 공주를 위해 경판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인은 가난하였으나 성품이 매우 고왔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눈이 셋 달린 강아지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와서 귀여워하며 잘 길렀다. 3년 후 개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자 정성껏 장사와 제사를 지냈다. 다음 해 그도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그는 저승에서 눈 셋 달린 왕을 만났다. 왕이 말하였다. "저는 몇 년 전 명부에서 잘못을 저질러 개의 몸으로 지상에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살이 3년 동안 주인어른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갚고자 염라대왕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인연을 지었는가?"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오래도록 전할 수 있는 불경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승에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명하였다. "저승 명부에서 이거인의 이름을 찾아서 목숨을 10년 더 연장하여 세상에 다시 보내라." 눈 셋 달린 왕은 말하였다. "주인어른, 인간 세상에 돌아가면 '대장경 판각 공덕문'이라는 권선문(불사에 참여하여 복덕을 짓도록 권장하는 글)을 만들어 관청으로 가서 도장을 받고 기다리세요. 제가 인간 세상을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곧 꿈꾸듯 깨어났다.

그때 궁궐에서는 두 공주가 병으로 앓아누웠다.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날 두 공주가 말하였다. "대장경 불사하는 자와 인연을 지으면 저희 병이 낫습니다." 임금은 곧 나라 안에 명하였다. 합천 군수는 이거인에게 권선문을 가지고 궁궐로 가게 하였다. 궁궐에 온 그에게 공주가 말하였다. "저는 바로 세 눈을 가진 왕입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왔습니다." 왕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는 저승의 삼목구왕(三目狗王)입니다. 이분은 저승에 왔다가 염라대왕으로부터 대장경 불사를 명 받고 다시 이승에 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불사에 큰 시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공주들도 무사하고, 나라도 태평하며, 임금께서도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임금이 흔쾌히 응하자 왕은 이거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공주 몸에서 떠나갔다. 곧 공주들은 완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금은 대장경 불사에 많은 재물을 보시하고, 좋은 일꾼을 모아 경판을 새기게 하였다. 그 경판을 가야산 해인사에 모셨다.

이거인의 자비와 개의 은혜 보답으로 인한 불연(佛緣)의 결과는 해인사 장경각에 천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불교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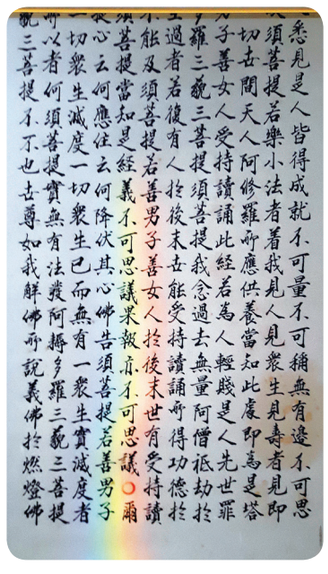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